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¹⁷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¹⁸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¹⁹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²⁰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²¹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출21:17-21)

사람이 교회에 속하게 되면 처음엔 말씀의 겉뜻(*the literal sense of the Word*)으로 표현된 진리를 배웁니다. 이 진리는 겉 사람(*the external man*)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조절된 일반적 진리입니다. 이 겉 사람은 자연적 빛(*natural light*)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외적

방식(*an external way*), 즉 청각을 통해 수용되어 겉 사람의 기억 안으로 저장되는데, 거기엔 이것 말고도 이미 세상에서 비롯된 다양한 지식들(*various memory-knowledges derived from the world*) 또한 있습니다. 그 후, 이 기억에 저장된 것들은 속 사람의 시야, 즉 관점(*the sight or view of the internal man*)에 종속되는데요, 이 속 사람은 천국 빛(*the light of heaven*)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거기서 진리들을 선택, 불러일으키는데(*calls forth*), 이 진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by the way of the soul*) 흘러들어온 선과 일치하는 진리들이며, 이 진리들은 앞서 그가 수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 진리들과 선을 결합하십니다. 속 사람 안에서 그렇게 결합된 진리들을 ‘영적 진리들’(*spiritual truths*)이라 하고, 이 진리들과 결합된 선을 ‘영적 선’(*spiritual good*)이라 합니다. (AC.9034: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9034번 글 3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The man of the church first learns truth from the literal sense of the Word, which is general truth accommodated to the apprehension of the external man, who is in natural light. This truth is received by an external way, that is, by hearing, and is stored up in the memory of the external man, where are also various memory-knowledges derived from the world. Afterward the things stored up in this memory are subjected to the sight or view of the internal man, who sees from the light of heaven. The internal man calls forth therefrom by selection the truths which agree with the good which flows in from the Lord by the way of the soul, and which the man had received. There the Lord conjoins these truths with good. The truths which are thus conjoined in the internal man are called “spiritual truths,” and the good with which the truths are conjoined is called “spiritual good.”

이는 오늘 본문 20절, ‘사람이 매

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And when a man shall smite his manservant, or his maidservant, with a rod)에 대한 주석입니다.

지난 시간엔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동료나 종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법,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지난번 사람을 죽이는 죄와 관련,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좀 더 있어 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¹²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¹³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¹⁴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¹⁵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¹⁶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2-16)

말씀에서 ‘사람’은, 사람을 뜻하지 않고, 신앙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와 선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영적 의미, 곧 속뜻으로는 타인에게 있는 진리와 선을 빼앗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래서 타인에게 있는 진리와 선을 빼앗는 것은 그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처럼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빼앗아 버려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짓을 할 때 상대방의 진리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진리도 함께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면, 악한 의도가 자기 안에 있

는 진리와 결합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할 때 선한 의도가 진리와 결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악한 의도가 진리와 결합하게 되면 진리가 거짓으로 변질이 되며, 이것이 영적으로 타인을 죽이게 되면 자기 자신도 함께 죽게 되며, 마찬가지로 타인을 살리면 자신의 영도 함께 살아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서 안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하시는 것은 타인에게 있는 진리와 선을 해치지 말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진리와 선도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도 고의로 죄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¹⁷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주님을,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 또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는 말씀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먼저,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따라 살려고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진리를 온전히 받아드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새 교

회 안에도 전에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어떤 관념을 붙들고, 놓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져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 그것을 진리라 고집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개인의 지적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완전한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불변의 진리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이것을 진리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실 때 언제든지 처음 것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에 반(反)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고 죄짓는 것은 모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 19, 2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¹⁸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여기서 ‘사람, 상대방’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하

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은 자연적인 진리, 즉 말씀의 글자의 뜻, 겉 글자의 뜻입니다. ‘주먹’은 겉 글자의 뜻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에서 ‘손’은 보통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먹 역시 능력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자연적 진리의 위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돌이나 주먹으로 동료를 쳤다’는 것은 말씀의 겉 글자의 뜻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적 진리를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推論)한 진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라며 마음으로 굳히는,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한 진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리라 하더라도 통합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감각적인 사람들한테는 통하는 것이지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천국의 빛을 통해 진리를 보는 대신 세상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한 진리에 매료되고, 그것을 진정한 진리라 믿습니다.

정리하면, ‘주먹’은 말씀의 겉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한 진리의 설득력을 뜻하고,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들이 내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 진리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적 진리와 반대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적 진리와 반대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다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글자의 뜻에서는 가끔 주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또 주님은 결코 성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주님은 성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표

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내적 진리와 반대로 해석하도록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한 진리는 취하면서도 내적 진리는 부인할 때, 우리는 ‘**돌과 주먹으로 동료를 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동료**’는 내적 진리를 의미하고, ‘**치는 자**’는 자연적인 진리, 즉 말씀의 겉 글자로부터 추론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적 진리의 위력에 의해 거부된 진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침대에 누워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리에 누웠다**’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침상에 누워 있다**’입니다. ‘**자리, 침상**’은 자연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진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내적 진리가 자연적인 의미에 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는 가려지거나 외면된 채 자연적 의미로만 해석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동료가 매를 맞고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신앙인들의 내면에 천국 빛이 없어 영적 진

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¹⁹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어느 때 우리는 천국의 빛을 소유하게 될까요? 주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으로 진리를 구할 때, 그때 천국의 빛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내적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19절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고 표현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글자의 뜻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를 짚었다’고 했는데, 지팡이는 영적 진리 안에 있는 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팡이가 선에서 나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걷는 것은 비로소 진리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에서는 ‘행동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한다고 하는 까닭은, 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 진리 안에 있는 선의 능력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없고,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진리에 따라 살려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다’ 하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서는 그가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를 친 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영적 진리는 가둬 놓고, 정작 자신이 마치 영적 진리인 양 행세했던 문자적 진리입니다. ‘형벌을 면한다’는 것은 비록 말씀을 잘못 해석했지만 악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고요, 이해력이 아직 부족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악의 없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면하되’**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할 때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려 해도 잘되지 않아 시험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가 반복하면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실까요? 영적 진리를 풍성하게 주심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또 **‘완치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영적 진리가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겔47:12)

약이 된다는 말은 조금 전에 완치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빛을 통해 말씀의 내적인 부분을 보기 시작할 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가 선을 목적으로 진리를 구할 때 주님께서 천국의 빛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천국의 빛을 통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진리 안에 있는 선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

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 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료들끼리의 다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동료의 한쪽은 내적 진리를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말씀의 글자의 뜻인 자연적인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동료들끼리의 다툼은 내적 진리와 자연적 진리 간 다툼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전이 종을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20절입니다.

20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기서 상전과 종도 영적 진리와 자연적인 진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상전’은 영적 진리이고요, ‘종’은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여종’은 자연적 진리, 즉 문자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여성은 대개는 애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인 진리와 그 애정을 남종과 여종에 비유하는 까닭은 뭘까요? 영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적인 진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진리와 그 애정은 영적 진리로 이끄는 안내자이며, 영적 진리를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을 때로 쳤다’ 했고, ‘당장에 죽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상전이 남종이나 여종을 친다는 것은 영적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적 진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진리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이 문자적인 진리를 소홀히 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 뜻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를 알기도 전에 문자적인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의 속뜻에 대해 많이 안다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겉 글자의 뜻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 글자의 뜻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겉 글자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지속되면, 그것은 자칫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내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자연적 진리는 내적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인 것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것들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자연적, 감각적인 것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이 주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데, 그냥 공중에 짓지 않고 기초를 세우고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진리, 즉 글자의 뜻은 내적 진리의 그릇이요 기초이며,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이면 형벌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버릴 때는, 그것이 내적 의미와 상충(相衝)할 때입니다. 그때는 문자적인 의미를 버리고, 내적 의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내적 진리를 표상하는 상응(相應)으로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적 진리뿐 아니라 글자의 뜻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응의 의미를 통해 내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자의 뜻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5:19)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²¹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1절에서 주님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십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은 주님께서 내적 진리를 주실 때까지 글자의 뜻을 버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는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론한 진리가 상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상전의 재산’이란 돈을

주고 산 진리, 즉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5장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55:2)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을 달아줬다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얻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성을 통해 깨달은 진리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 하시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적 진리가 주어지기 전에 인간의 지성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나 이틀을 연명한다’는 것은 내적 진리가 주어질 때까지 문자적 진리가 진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또 ‘**상전의 재산**’은 그 문자적인 진리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면한다**’는 것은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료나 종을 폭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서 동료들끼리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는 모두 문자적인 진리와 내적 진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글자의 뜻으로부터 시작, 점점 내적 진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적 진리보다는 문자적인 진리에 더 흥미를 느껴 내적 진리를 훼손하거나 가로막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동료를 돌과 주먹으로 치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돌과 주먹**’은 문자적인 진리가 가진 힘, 설득력을 나타내고요, ‘**동료를 치는 것**’은 문자적인 진리로 내적

출21:17-21

‘동료와 종을 폭행하는 자’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전이 종을 폭행하는 경우’는 내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자적인 진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진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내적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에 문자적인 진리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진리를 버릴 때는 내적 진리를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버리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진리도 중요하고, 내적 진리도 중요합니다. 내적 진리도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하고요, 문자적 진리도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만 내적 진리를 취한 다음에는 문자적 진리는 내적 진리를 위한 상응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진리와 내적 진리와의 관계, 또는 역할을 이해한다면, 진리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부인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를 부인하는 모든 일들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계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

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겔4 7:12)

아멘

원본

2017-10-1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1(D7)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